

News Release



현대 미술과 화학의 만남 – 바스프, 구겐하임 미술관(Guggenheim Museum)의 새로운 전시에 완전한 정적을 선사

2017년 3월 24일 뉴욕 플로햄 – 도시의 소음은 일상적인 것이지만, 특히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소란스런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. 레스토랑의 소음은 90 데시벨 이상을 기록하며, 도시를 돌진하는 전철은 80 데시벨 이상으로 치솟는다.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*Doug Wheeler*의 새로운 작품 [PSAD Synthetic Desert III](#)은 고요하고 정적인 도피를 제안한다.

이 미술관 전시에서 *Doug Wheeler*의 작품은 글로벌 화학 기업인 바스프의 제품으로 실현됐다. 이 작품에서 그는 최소의 주변 소리만 남기고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된 반무향실(半無響室)에서 소리와 빛, 그리고 공간을 조작한다. 설비는 부분적으로 음향 공학 실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음 억제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한다. 공간의 조명과 구성은 무한 공간의 광학적 인상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. *Wheeler*는 *Synthetic Desert III*의 시각적, 청각적 인상을 작가 자신이 경험한 북부 애리조나 사막과 비교한다. 이 상황에서 침묵에 가까운 조건이 거리의 시각적 감각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.

"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 상황에서 음향 지수가 30 데시벨로 측정된다면, *Wheeler*의 반무향실에서는 10-15 데시벨 정도 될 겁니다. 너무 조용한 나머지 이 곳에서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

미디어 문의

한국바스프
홍보팀 김나리 과장
Phone: (82) 2 3707 7507
Fax: (82) 2 3707 7889
nari.kim@basf.com

한국바스프주식회사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,
대한상공회의소빌딩 16층 100-743
Phone: (82) 2 3707 7506
Fax: (82) 2 3707 7889
<http://www.basf.co.kr>

정도입니다." 라고 바스프 북미 지역 멜라민 폼 전문가인 **Doyle Robertson** 은 밝혔다.

전시회의 반무향 특성은 뛰어난 흡음성을 가지고 있는 멜라민 수지 기반의 오픈 셀(open-cell) 폼인 바소텍(**Basotect®**) 제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. 바소텍은 북미 시장에서 뉴욕시 초고층 건물의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 (최대 시속 37km) 에 사용되는 등 건축, 건설 및 여러 응용 산업 분야에서 소음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.

화학, 예술 및 건축이 융합된 400 개의 피라미드와 600 개의 부채꼴 모양 바소텍 구조물이 전시관의 바닥, 벽 및 천장을 덮고 있다.

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인 **Francesca Esmay, Conservator, Jeffrey Weiss** 와 전시 디자인 디렉터인 **Melanie Taylor** 는 2 년 여에 걸쳐 작가와 함께 작업하며 1971 년 처음 고안한 이 작품을 구겐하임에서 최초로 선보였다. 작업 팀은 작품에 사용될 소재를 신중하게 선택했다.

"바소텍의 소재 특성과 디자인 자유도를 고려했을 때 이번 구겐하임 전시회는 이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." 라고 핀타 어쿠스틱 (pinta acoustic)의 **Joerg Hutmacher** 대표가 말했다. 핀타 어쿠스틱은 음향 제어가 되는 3D 천장과 벽을 개발했다. 이어 **Joerg Hutmacher** 는 "작가의 상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 바소텍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힘듭니다." 라고 밝혔다.

높은 흡음력과 거의 모든 형태로 변형 가능한 특징으로 바소텍은 건축가, 디자이너, 음향 엔지니어 등에게 적절한 음향을 찾아주고 스포츠 경기장, 콘서트 홀 또는 녹음 스튜디오등에 사용되어 예술적으로 특별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. 바소텍은 또한 우수한 난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가볍고 설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.

"소리는 건축 환경에서 인간의 건강과 신체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번 전시를 통해 바소텍의 특성을 강렬하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" 라고 **Robertson** 은 전했다.

Doug Wheeler: PSAD Synthetic Desert III 는 구겐하임 미술관 7 층에 위치해 있으며 3 월 24 일부터 8 월 2 일까지 전시된다. 티켓 구매는 구겐하임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(Guggenheim.org)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.

###

한국 내 바스프

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는 1954 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. 선도적 외국 기업으로서 바스프는 국내 7 개의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. 또한 수원에는 바스프 아태지역 전자 소재 R&D 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탄, 시흥, 안산 소재에 4 개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. 지난 2016 년 국내 고객 대상 총 매출액은 약 11 억 유로를 기록했으며, 2016 년 말 기준 1,105 명의 임직원이 국내에 근무하고 있다. 한국 내 바스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.basf.com/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바스프 그룹 소개

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.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.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세계 약 11 만 4 천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. 바스프 그룹은 화학 제품, 퍼포먼스 제품, 기능성 소재 및 솔루션, 농업 솔루션, 석유 및 가스 등 5 개의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. 바스프는 2016 년 약 580 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프랑크푸르트(BAS), 런던(BFA), 취리히(BAS)에서 거래되고 있다.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.basf.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.